

2023-11-13 (2023-41호)

11월 13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美 물가·임시예산안 등 굵직한 이벤트 산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

서울, 11월13일 (로이터)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대외 주요 경제지표와 미국 임시예산안 종료 등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하며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달러/원 환율은 최근 급락분을 일부 반납하며 1,310원대를 회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 결과와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달러/원은 주 초반 1,290원대로 저점을 낮췄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추가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달러/원은 큰 방향성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장세를 펼쳤다. 수급적으로도 크게 의미 있는 방향성 베팅은 별로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국제 금융시장 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외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돼 있어 이에 따른 자산별 변동성을 살피며 달러/원 환율도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14일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가 발표될 예정으로,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둔화가 확인될 경우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조사에서 헤드라인 CPI는 전월비 0.1%로 직전달의 0.4%보다 둔화되고,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CPI는 직전달과 같은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15일에는 미국의 10월 소매판매 지표가 발표된다. 소매판매는 전월비 -0.1%로, 9월의 0.7%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에는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도 공개된다. 지난주 예상보다 부진한 수출지표에 중국의 취약한 경제 회복세가 부각된 가운데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위안 변동성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15일로 예정돼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핑 중국 국무원 부총리 회동 등 최근 양국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관계 개선 신호가 나올지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이 17일로 예정된 미국 임시예산안 종료일을 앞두고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는 시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섣다운이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주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견 충돌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뉴스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13일 관세청이 11월1~10일 수출입 지표를 공개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문윤아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1월13일(월)

- ⊙ 관세청: 11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위원회 전체회의 (14:00)

11월14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10:00)
-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11월15일(수)

- ⊙ 통계청: 2023년 10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09:00)

11월16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10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AI와 노동시장 변화(2023-31호) (12:00)
- ⊙ 기획재정부: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1월17일(금)

- ⊙ 기획재정부: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07: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신성장전략TF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1월13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1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0월	10.3%	10.3%
11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0월	665.0B	2,310.0B
11월10-17일		중국	FDI (YTD)	10월		-8.40%
11월13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MM	10월	0.0%	-0.3%
11월14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0월	-30.00B	-171.00B
11월14일	19:00	유로존	GDP 속보치 QQ	3분기	-0.1%	-0.1%
11월14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0월		90.80
11월14일	22:30	미국	CPI MM, SA	10월	0.1%	0.4%
11월15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3분기	-0.6%	4.8%
11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10월	3.1%	3.1%
11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0월	4.3%	4.5%
11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0월	7.0%	5.5%
11월15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9월	-0.7%	0.6%
11월15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1월10일주간		165.9
11월15일	22:30	미국	NY 연은 제조업지수	11월	-2.60	-4.60
11월15일	22:30	미국	PPI MM	10월	0.1%	0.5%
11월15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0월	-0.1%	0.7%
11월16일	00:00	미국	기업재고 MM	9월	0.3%	0.4%
11월16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9월	0.9%	-0.5%
11월16일	08:50	일본	수출 YY	10월	1.2%	4.3%
11월16일	08:50	일본	수입 YY	10월	-12.2%	-16.3%
11월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0월		-0.1%
11월16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0월	-0.3%	0.1%
11월16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0월		0.7%
11월16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1월6일주간		217k
11월16일	22: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기업활동지수	11월	-11.0	-9.0
11월16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0월	-0.4%	0.3%
11월17일	00: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11월	40	40
11월17일	22:30	미국	건축허가건수	10월	1.450M	1.471M
11월17일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10월	1.345M	1.358M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1월13일 (월)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10시50분)
- ⊙ 휴장국가: 싱가포르

11월14일 (화)

- ⊙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연준·스위스 중앙은행·BIS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후 7시30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주최 화상행사 개최사 (15일 오전 1시)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디트로이트경제클럽 토론회 참석 (15일 오전 2시45분)

11월15일 (수)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버지니아 주지사 주택 컨퍼런스서 연설 (16일 오전 5시30분)

11월16일 (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제 7차 연차총회 환영사 (오후 8시30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 제 7차 연차총회 토론 참석 (오후 9시10분)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주최 2023 금융안정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10시3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 연방은행 주최 2023 미국 국채시장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1시25분)
- ⊙ 크리스토퍼 윌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캐나다 중앙은행·스웨덴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 참석 (17일 오전 0시30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뉴욕 연방은행 주최 컨퍼런스서 연설 (17일 오전 0시35분)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아시아 경제 정책 컨퍼런스 토론 참석 (17일 오전 2시)

11월17일 (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제 33회 프랑크푸르트 유럽은행회의 기조연설 (오후 5시30분)
- ⊙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2023 청산소 연례 컨퍼런스 토론 참석 (오후 10시45분)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보스턴 연방은행 주최 경제 경제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0시45분)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주최 연례 지역은행인 심포지엄 연설문 공개 (오후 11시45분)
-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제 33회 프랑크푸르트 유럽은행회의 폐막 연설 (18일 오전 0시)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CNBC 인터뷰 (18일 오전 0시15분)

▶ 주간 세계 5대 이슈

⊙ 美 인플레이션 지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많은 연방준비제도 정책결정권자들은 금리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낼 만큼 충분히 높은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년에 연준 금리가 25bp씩 세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트레이더들은 14일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 CPI는 임대료 급등으로 0.4% 상승했지만, 기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급격하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노동시장 완화를 시사한 10월 고용지표가 초래한 금리 정점론이 심화될 수 있다.

한편 의회가 11월17일 시한 전에 적어도 일시적인 자금조달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 정부 섰다운 가능성이 커진다.

⊙ 中 경제의 방향

중국의 부동산 혼란을 누가 떠안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중국이 평안보험에 중국 최대 민간 개발업체인 벽계원(Country Garden)의 지배지분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평안의 주가는 회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1년래 최저치로 급락했다.

올해 들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중국인민은행이 5% 성장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IMF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경제지표는 제조업 둔화와 소비 부진 등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시장은 15일 10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를 통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확인할 수 있다.

⊙ 연준 전망과 달러의 방향

달러 강세가 갑자기 시장의 연준 금리 인하 베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월 의장이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시각을 일축한 덕에 나타난 달러 반등세는 약세론자들이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차 확신함에 따라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의 3분의 2가 연말까지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달러에 대한 롱포지션도 감소하고 있다. 소시에테테제네랄은 최근 151.74까지 상승했던 달러/엔이 145-150엔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금리 인하 전망은 달러에 부정적이지만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어 전 세계에 타격을 주면 안전자산

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 영국·유로존 경제지표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더 고착화되었다.

이는 2023년 초 10%가 넘었던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리시 수낙 총리와 영란은행,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15일에 발표될 10월 CPI 데이터는 수낙 총리가 목표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9월의 6.7%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나 하락할지가 관건이다.

2024년 중반이 금리 인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휴 필 영란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발언이 정당화될지도 관심거리다. 영국의 고용지표, 소매판매, 생산자물가지수도 예정되어 있다.

14일에는 유로존 3분기 GDP 속보치도 발표된다.

◎ 이탈리아 리스크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재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정크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과 부정적 전망을 부여한 무디스는 17일 이탈리아 등급을 리뷰한다.

피치는 10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탈리아의 전망을 고려할 때 무디스의 등급 강등 리스크가 크며, 강등 시 독일과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격차가 250bp로 확대돼 주변 지역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탈리아 증시는 세계 증시 대비 50% 저평가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견실해져 과거보다 채권 혼란에 대한 취약도가 낮아졌고, 주식시장의 일부가 과소평가돼 일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